

시끌벅적 e-스타



얼굴 낙서에도 등급이 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대학생활의 빠질 수 없는 추억 MT, 고통의 중간고사도 끝났고 꽃피는 계절을 맞아 산과 들로 떠나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흥겹게 마시고 노는 MT의 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다.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면 다음날 거울 속에 낯선 이의 모습을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MT가면 빠지지 않는 ‘공포의 얼굴낙서’가 동영상으로 탄생했다. 동영상은 등장 하루 만에 1만 네티즌의 클릭을 받으며 인기 폭발이다.
동영상에는 레벨에 따른 얼굴 낙서가 등장한다. 하수 단계는 단조로운 색상으로 별 의미 없는 단순한 낙서를 한다. 중수부터는 뭔가 그럴듯한 모양새가 나온다. 눈과 수염도 그리며, 많은 얼굴을 각

기 다른 개성으로 표현해주는 센스 정도는 갖춰야 중수 단계에 오를 수 있다.
고수에 오르면 다양한 색을 활용한 작품 세계를 편다. 과하지는 않지만 한눈에 훑히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고수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얼굴 색 전체를 바꿔 놓기도 한다.
고수를 넘어 초고수는 낙서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간인 듯 아닌 듯 독특한 얼굴을 그려 놓고, 주변에 있는 소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선 온몸의 낙서까지 가능해야 한다. 신의 손에서는 안 깨고 자는 사람이 더 신기할 정도의 작품이 탄생한다.
재미와 웃음을 주는 얼굴 낙서를 위해 명심해야 할 것? 하룻밤 웃음을 위해 다음날 유행 사태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용수의 파스칼리



요즘은 예전에 비해 혼자서 음악 듣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 방송이나 일을 핑계 삼기에는 내 스스로에 찜찜하지 못하다. 잠시나마 게으른 나의 모습에 일침을 놓아 본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달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시간, 메달라 가는 감정에 촉촉함을 주는 배려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야 할 것 같다.
혼자 음악을 들을 때는 연주 음악에 주로 손이 간다. 목소리가 들어가는 음악은 왠지 자신의 느낌보다는 들려지는 목소리에 집중해 지는 것 같아서다. 연주곡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 아름다운 로망스, 슬프고 아련한 헤어짐,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 된다. 무한한 감정의 나라

동 수위가 다른 연주자들 보다 높다. 그저 듣는 음악이 아닌 감동적이고 황홀한 짧은 영화 한편을 보는 느낌을 주기에 평론가들은 그의 연주를 영화적이며 회화적이라고 한다. 극한의 슬픔이 아닌 감미로운 공존하는 애수 락 멜로디는 맑지만 안타까운 여운이 감도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감정의 결정체를 마음 깊은 곳으로 침잠하게 한다. 멕시코의 위대한 뮤지션이었던 아버지 Ernesto Cortazar 1세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는, 13살이던 어린 나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아픔을 담고 깨끗하게 자신의 소망을 이루었다. 생애 첫 곡을 할머니에게 헌사한 이후 500여 편의 영화 음악에 그의 감성을 표현해 왔다. 하지만 그의 음

Moment Of Solitude의 황홀한 감동

를 펼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연주음악, 그래서 난 연주곡이 좋다. 무드음악이나 경음악으로 불리던 시절이 지나고 뉴 에이지 음악이 보급되면서 연주음악을 좋아하는 이들도 많이 늘었다.
한글은 형용사가 풍부하다고들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형용사를 다 동원해도 부족한 피아니스트를 소개하려 한다. 멕시코 출신의 Ernesto Cortazar II(에르네스토 코르타자르 2세)라는 피아니스트다. 에르네스토 코르타자르 2세의 음악은 편안하고 휴식과 명상뿐만 아니라 Healing Music(치유 음악)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그의 연주에 담긴 섬세한 감성의 조각은 듣는 이들을 감동으로 이끈다. 국내에 잘 알려진 유기 구라모토나 앙드레 카논, 케빈 컨과는 또 다른 서정성에 애뜻함의 황홀경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지오반니 마라디나 라울 블라시오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느낌의 서정적인 피아니스트다.
진한 애수를 표현하지만 음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은 에르네스토 코르타자르의 음악은 극적인 감

악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정규 앨범을 만드는 레코드 레이블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였다. 뉴에이지 마니아들과 누리꾼들을 통해 알려져 71개국에 디지털 음원이 팔려나갔으며 그의 사이트는 팬들에 의해 17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필자는 그의 앨범 Moment Of Solitude를 처음 접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그의 음악을 듣는 순간 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꿈을 여행하고 있었다. 감성은 무방비 상태로 끝없는 상상의 나라를 펼쳤고,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음악을 통해 벅차오르는 황홀한 감동을 느껴보기를 원한다면 Ernesto Cortazar를 꼭 들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내렸던 단비처럼 그의 음악은 분명 가슴속에 축적된 감성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협주곡으로 변주된 Solitude를 들으며 오늘도 나는 뉴에이지의 라흐마니노프라 불리는 Ernesto Cortazar의 음악세계로 행복한 여행을 떠난다.
/김영림기자-광주교동방송 '남민이 있는 곳에 진행'

리빙 센스

건강한 두피 만들기 ②

▲올바른 샴푸
모근부터 머리카락까지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샴푸는 손바닥에 덜어 거품 낸 후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밀어내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린스를 손바닥에 묻혀 두피에 닿지 않도록 머리카락에 바른 후 깨끗이 씻어낸다.
찬물로 마무리해 혈액순환을 돕는다.
▲건강한 두피 만드는 브러싱
아침저녁으로 20~30회 정도 빗질하면 두피가 건강해진다.
비듬이 있을 경우에는 강하게 빗질하지 않도록 하고,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는 머릿결이 손상되므로 주의한다.
빗은 쿠션이 있으면서 끝이 둥근 것을 선택한다. 샴푸를 하기 전에 브러싱을 해주면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혈액순환을 도와 두피 건강에 좋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4월 24일(음 3월 19일 甲午)

子	36년생 돌아보면 이웃을 살펴볼 일이 있다. 48년생 주변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60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볼 때다. 72년생 직인,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해야 한다. 84년생 무리한 변화는 잘못이 따르니 신중하라. 행운의 숫자: 15, 27
丑	37년생 재물과 건강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49년생 불면증이나 소화 장애에 주의한다. 61년생 건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7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된다. 85년생 소신껏 행동하면 마음이 자유롭고 재물도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19, 28
寅	38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 50년생 협조자가 나오나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2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매사에 신중 하라. 74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되니 대화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12, 23
卯	39년생 제사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51년생 도화기가 재발하면 명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63년생 누병 구할 등으로 불순한 일이 괴롭힐 수도 있다. 75년생 기성친화한 황제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04, 22
辰	40년생 본인의 뜻을 이루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52년생 인생의 뜻을 아는 시기이니 지금부터고 행동하라. 64년생 증반은 글이나 생각과 행하라. 76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는다. 행운의 숫자: 07, 26
巳	41년생 예상치 못한 실수가 있다. 53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65년생 신체적 불면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77년생 대단히 불리해질 수니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행운의 숫자: 06, 25
午	42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54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66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하라. 78년생 공술에 병이 따르니 피하는 게 좋다. 행운의 숫자: 11, 24
未	43년생 자기자랑보다 동료를 칭찬하면 공은 내게로 온다. 55년생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예의를 지키면 사람은 두 배로 되리라. 67년생 제일 귀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79년생 이성의 만남이 있다. 행운의 숫자: 17, 18
申	44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수도 있다. 56년생 나에게 불리한 일은 모두가 내 탓으로 생각하라. 68년생 배운 덕이 없다 생각 말고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생각하라. 80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라. 행운의 숫자: 09, 21
酉	45년생 많은 지출이 발생하나 투자로 생각하라. 57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이 있고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9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81년생 애인과 다툼은 있으나 원인은 사소한 것. 행운의 숫자: 03, 16
戌	46년생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난다. 58년생 여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다. 70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마라. 82년생 소탈한 욕심을 버리는 사람에게 승리의 여신은 미소 짓는다. 행운의 숫자: 02, 29
亥	47년생 약어도 수달에게 꼬리를 내어준다. 59년생 일일일득,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 71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무리하는 자신이 허하다. 83년생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행운의 숫자: 13, 3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광주 유단자회 리그전

세력이 곧바로 3보 (29~45)

白 임상빈 6단 黑 박정규 5단

포석의 기로에 선 장면인데, 박정규 5단은 즉각 흑 29로 뛰어들어 적극적인 포석작전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수는 다소 과격한 수로 우편 '가'에 두는 것이 무난했다.
임상빈 6단 허를 찌른 듯 당황하는 눈치더니 백 30으로 왼쪽을 지키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런데 이 수가 느슨해서 초반의 주도권을 흑에

바둑소식

한국바둑리그 제1회화재 선두

KB국민은행 2008 한국바둑리그 1라운드 경기 결과 총복 제1회화재가 1위에 올랐다.
23일 한국기원은 "8개 팀이 맞붙는 이번 1라운드에서 울산 디아체 등 4팀이 1승씩을 따냈지만 개인승수에서 제1회화재가 가장 많은 4승을 따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철한·이세훈 9단, 홍민표 6단 김승재·류동완 초단이 포진해 있는 제1회화재는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다.
광주 kixx는 울산 디아체에 2-3으로 패배, 공동 5위에 그쳤다. 광주는 오는 26일 경기 한계원과 2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오광복기자 kroh@

세력이 곧바로 3보 (29~45)

白 임상빈 6단 黑 박정규 5단

가

포석의 기로에 선 장면인데, 박정규 5단은 즉각 흑 29로 뛰어들어 적극적인 포석작전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수는 다소 과격한 수로 우편 '가'에 두는 것이 무난했다.
임상빈 6단 허를 찌른 듯 당황하는 눈치더니 백 30으로 왼쪽을 지키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런데 이 수가 느슨해서 초반의 주도권을 흑에

굿모닝 잉글리쉬 <1146>

Where is the remote control?
원격 조종기가 어디에 있지요?

A: Where is the remote control?
B: It's on the couch.
A: Could you hand it to me?
B: Sure.

A: 원격 조종기가 어디에 있지요?
B: 의자 위에요.
A: 좀 건네주시겠어요?
B: 그럼시다.

* 골프 채가 어디 있지요?
= Where is the golf cart?
* 서류 가방이 어디 있는 거지요?
= Where is your briefcase?
* 장애인 주차장이 어디에 있나요?
= Where is the handicapped parking spac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46>

氣(き)を付(つ)けた方(ほう)がいいだろうね.
조심하는 게 좋겠지.

A: 來年(らいねん), 大(おお)きな 地震(じしん)があると聞(き)いたけど, 本當(ほんとう)かなあ.
B: さあ, いつあるか分(わ)からないけど, 氣(き)を付(つ)けた方(ほう)がいいだろうね.
A: いやだな.

A: 내년(내년)에 큰 지진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
B: 글썽,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지
A: 꺼림칙하군.

~~~聞(き)く: ~~라고 듣다  
ある(あ)る: 있는지  
分(わ)かる: 알다, 알 수 있다  
氣(き)を付(つ)ける: 주의하다, 조심하다  
いや(いや): 꺼림칙하다, 싫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23>

我从马尼拉来。  
나는 마닐라에서 왔습니다.

A: 你从哪(哪)里来?  
nǐ cóng nǎlǐ lái  
니 쑹(哪)리 라이  
B: 我从马尼拉来。  
wǒ cóng mǎnǐlǎ lái  
오 쑹(哪)리 라이  
A: 马尼拉怎么样?  
mǎnǐlǎ zěnmeyàng  
마니라 쑹(어)양  
B: 马尼拉很大, 人很多。  
mǎnǐlǎ hěn dà rén hěn duō  
마니라 쑹(어)대 쑹(어)인 쑹(어)다  
A: 马尼拉在哪里?  
B: 马尼拉在菲律宾。  
A: 马尼拉在哪里?  
B: 马尼拉在菲律宾。  
马尼拉 [mǎnǐlǎ]    마닐라  
怎么样 [zěnmeyàng]    어떻게/어떻습니까?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763>

膏粱珠味 (고량진미)  
기름질고, 기장량, 보배진, 맛미

고량진미(膏粱珠味)는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곡식으로 만든 진귀한 맛이라는 뜻으로, 매우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말한다. 비슷한 성어로는 산과 바다의 진귀한 맛이라는 산해진미(山海珍味), 또는 진수성찬(珍羞盛饌) 등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부귀(富貴)를 바라고 빈천(貧賤)을 싫어한다. 맹자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갈파하고 다음처럼 일깨운다.  
“귀하고자 함은 사람의 목숨이 마음이니, 사람마다 자기에게 귀함이 있건마는, 생각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다. 남이 귀하게 해준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니다. 조맹(趙孟)이 나를 귀하게 해주면 조맹이 능히 나를 천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경(詩經)'의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德)으로 배불렀네' 라는 구절처럼, 인의(仁義)에 충족하면 남의 고량의 맛(膏粱之味)을 원하지 않게 된다.”(告子上)  
고량(膏粱)의 고기와 곡식으로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보다 인의(仁義)의 남을 사랑하고 정의를 지키는 행동으로 정신적 넉넉함을 채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망국병(亡國病)이라는 현대의 비만(肥滿)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여원(韓裕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